

요약

개별 보행공간 공공성지수 산출해 지도화 공간 유형별로 물리적 환경 개선방향 제시

보행공간의 공공성 시각, 개방형 중시에서 사회적 이익 공유로 발전

1991년 건축법 개정으로 민간부문이 조성하는 공개공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과거 공공부문에 의해서만 공급되었던 공원·광장, 공개공지 등 보행공간이 민간부문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보행공간의 공급이 민간부문으로 확장되면서, 유동인구는 많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보행공간이 부족한 도심부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조성하는 보행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으로 확대된 보행공간의 공급이 이용자의 수요보다는 공급자의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왜곡되면서 주변의 보행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파편화되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접근조차 어려운 보행공간이 나타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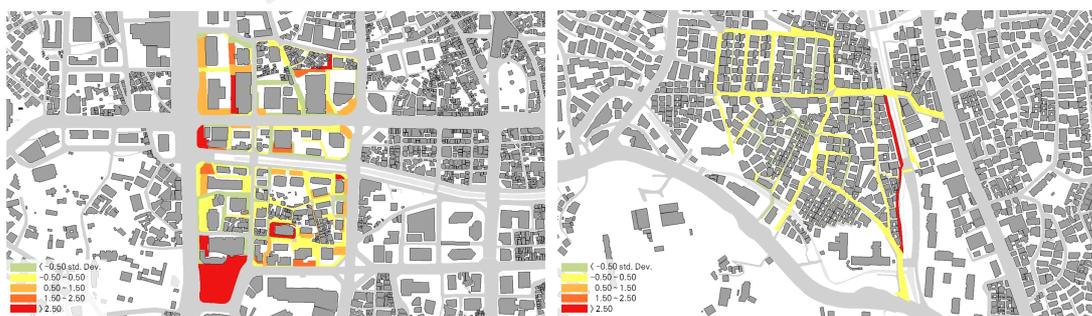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6년 서울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지금까지 공급하였던 보행공간을 대상으로 보행공간의 분포와 연계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공성지도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향후 보행공간과 관련된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공공성 지도를 활용하여 보행공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훼손된 보행공간의 연계성과 개방성을 보완할 예정이다. 하지만 단절되고 고립된 보행공간을 정비한다고 해서 보행공간의 공공성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생활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행공간의 공공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점차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사사로운 이용을 위하여 폐쇄된 공간이 아닌 여러 사람들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공간으로서 보행공간의 공공성을 바라보았던 시각이 공간을 이용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간이 부여하는 사회적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이 부여하는 사회적 이익에 대하여 덴마크의 건축가 얀겔(Jan Gehl)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보다는 삶을 즐기기 위한 느슨한 활동, 사람 사이의 사회적 접촉을 유발하는 활동이 많이 발생하는 공간일수록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이익이 많은 공간이라 정의하였다.

서울 공공성지도와 연동해 일반시민도 쉽게 알도록 지표·지도 제작

이번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산재한 100곳의 우수보행공간을 대상으로 사람들의 삶을 즐기기 위한 느슨한 활동, 사람 사이의 사회적 접촉을 야기하는 활동을 유발하는 보행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평가함으로써 보행공간의 공공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와 지수를 개발하였다. 먼저 보행공간의 물리적 환경과 이용 만족도를 평가한 연구를 바탕으로 보행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현장조사항목을 선별하였다. 향후 서울 공공성 지도와의 접목을 고려하여 ①장소선정의 보편성, ②조사결과의 객관성, ③개방공간의 단일성 원칙에 따라 선별된 10개의 현장조사항목은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하여 보행공간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필수적 활동과 선택·사회적 활동 간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 평가지표로 선정되었다: ①보행접근이 가능한 면수, ②바닥의 구배, ③볼라드 등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의 종류와 수, ④저층부 용도의 다양성, ⑤야간에 운영하는 가게의 종류와 수, ⑥개방형 입면의 주변 점포 수, ⑦벤치 등 가로시설물의 종류와 수, ⑧분수·조형물 등 공공예술품의 설치여부, ⑨CCTV 등 보안안전시설의 유무, ⑩그늘과 쉼터 등 미기후를 결정하는 시설의 유무. 이와 더불어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10개의 공공성 평가지표가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잠재요소인 편의성, 다양성, 접근성을 도출하고 각각의 잠재요소를 중심으로 공공성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수리모형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공공성 평가지표의 적용과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세종대로 주변지역과 정릉동 일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218개의 보행공간에 대한 공공성 평가지표를 현장조사를 통하여 계측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도출한 수리모형에 공공성 평가지표를 대입하여 편의성, 다양성, 접근성 측면에서 218개 보행공간에 대한 공공성지수를 산출하였다. 개별 보행공간에 대한 공공성지수는 이웃하고 있는 보행공간과의 상호 비교가 용이하도록 GIS를 활용하여 지도 위에 시각화하여 나타내었다. 지도 위에 시각화한 지수의 값이 양호할수록 따뜻한 색으로, 미흡할수록 차가운 색으로 표현함으로써 시각적 인지성을 높였다.



편의성지수를 반영한 주제도 (세종대로 주변지역(좌), 정릉동 일대(우))

이와 더불어 각각의 공공성지수를 종합하여 보행공간을 8개 유형, ①공공성 우수지역, ②접근성 미흡지역, ③다양성 미흡지역, ④편의성 미흡지역, ⑤다양성·접근성 미흡지역, ⑥편의성·접근성 미흡지역, ⑦편의성·다양성 미흡지역, ⑧공공성 미흡지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을 유발할 수 있는 보행공간의 물리적 환경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보행공간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그룹별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그룹유형							
		1	2	3	4	5	6	7	8
편의성	·사람들이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 ·햇빛이나 눈, 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물이 마련되어 있는가? ·아름답고 청결한 이미지를 연출해 주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가? ·CCTV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	●
다양성	·사람들이 자유롭게 시선을 마주칠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 ·24시간 사람들의 자유로운 방문을 유도하는 요소가 있는가?	-	-	●	-	●	-	●	●
접근성	·다양한 방향에서 보행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보행자의 접근을 저해하는 시설물이 있는가? ·보행자가 이동하거나 체류하기에 적합한가?	-	●	-	-	●	●	-	●

주: 그룹별 고려해야 할 사항을 ●로 표시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몇몇 공공성 평가지표만으로 서울시에 산재한 개별 보행공간의 공공성을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동안 간과하였던 보행공간에서의 활동다양성 측면에서 보다 정교한 공공성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어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제공하였다. 또한 공공성 평가지도를 통하여 그동안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었던 복잡한 지표, 지수의 의미를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향후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공공성 평가지도가 서울 공공성 지도와 연동된다면 공공성 평가지도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도 가능할 것이다.